

“공기역학으로 車 설계 혁신… 에어로 파트 27개국 수출”

프로 에이드로

브랜드별 파츠·바디킷 230종 개발 공기저항 줄여 주행 효율 개선

해외 매출 98%… 미국시장 주력 창업 5년 만에 500만불 수출탑

車 설계 소프트웨어 AOX 출시 예정 UAM·모빌리티로 기술 확장 모색

영동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만나는 경기 용인 양지읍.

캠핑장, 골프연습장, 한옥스테이 등이 모여 있는 조용한 숲길의 끝에 ‘140년간 바뀌지 않은 자동차 디자인 프로세스의 혁신’을 꿈꾸며 도전하고 있는 에어로 테크 스타트업 에이드로(Adro) 본사가 있다.

회사 1층은 마치 자동차 공업사를 연상시키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고객들의 차에 직접 파츠를 장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실험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주행 실험이 필요할 땐 인근에 있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이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11억원의 매출을 거둔 에이드로는 이 가운데 98%를 해외에서 거뒀다. 해외 매출의 60% 가량은 자동차 매니아들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벌어들이었다.



윤승현 에이드로 대표가 경기 용인에 있는 본사에서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자동차 주행성능을 높이는 에어로 파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90억 달러(약 43조원) 정도다. 반면 한국은 20억원 가량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우리는 가장 시장이 큰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27개국에 파츠를 수출하고 있다.”

2020년 3월에 에이드로를 창업한 윤승현 대표(사진)의 말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에이드로는 창업 5년 만인 지난해 무역의 날에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 벤처기업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도 획득했다.

에이드로는 공기역학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공학+F1레이싱+자동차 디자인’을 접목해 제품을 디자인해 선보이고 있다.

윤 대표는 “자동차 파츠나 바디킷을 만드는 회사는 많다. 하지만 공기역학 기술을 적용해 파츠를 만드는 회사는 없다”고 자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그는 F1 관련 기술자들을 많이 배출한 영국의 사우샘프턴 대학에서 경주용자동차 공기역학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다.

현재 에이드로의 대표 사업은 공기역학을 이용해 개발·양산한 에어로 파츠와 바디킷이다. 고정밀 카본 فاي버(CFRP) 등으로 만드는 파츠는 BMW, 포르쉐 등의 브랜드 차종에 맞는 230개 이상의

제품을 개발해 출시한 상태다.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 출력에 변화를 주지 않고 파츠를 바꾸는 것만으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료를 적게 쓰면서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에이드로의 사명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파츠 등을 통해 약 20%의 공기저항을 줄이면 5~7% 가량 효율이 더 올라간다는 게 회사측 분석이다.

한국에서야 일명 ‘튜닝카’를 가품에 콩나듯 볼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 차 매니아들이 많아 통상 차값의 10% 가량을 튜닝 비용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값이 2억원이라면 2000만원 정도를 파츠나 각종 튜닝에 투자하는 셈이다.

관련 사업을 처음 시작한 에이드로의

경우 창업 첫 해 6억원 가량에 그쳤던 매출은 18억(2021년)→33억(2022년)→48억(2023년)→95억(2024년)→111억원(2025년)으로 5년 사이 매년 77% 씩 성장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에이드로는 파츠 사업의 성장을 토대로 ‘공기역학 설계 소프트웨어(AOX)’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동차 디자이너들을 위한 AOX는 6월께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자동차 생산 방식은 디자이너가 초기에 공기역학까지 반영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어려웠다. AOX는 설계 첫 단계부터 최적화 방향을 도출하고 디자인에서 엔지니어링으로 피드백을 최적화하는 등 개발과 비용을 동시에 줄여준다. 무엇보다 AOX를 통해 차 정비 효율과 연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

에이드로는 현재 미국, 호주, 독일에 법인을 두고 있다. 호주와 그리스에는 연구개발센터가 있다.

윤 대표는 “우리의 공기역학 기술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디자이너를 위한 AOX도 마찬가지다. 항공 및 UAM(도심항공교통),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 트럭, 레이저 스포츠 장비 등으로의 무한 확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벤처펀드 1분기 4.3조 역대 최대… 투자시장 회복세 뚜렷

중기부, 1분기 벤처투자·펀드 동향 신규 결성 전년비 30.7% 증가 ICT서비스·전기장비 등 투자 견인

올해 1분기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이 4조365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분기 벤처투자액은 3조3189억원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벤처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조합 실적을 합친 것이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0.7%, 신규 벤처투자액은 24.1% 각각 증가했다. 신규 벤처투자는

2022년 1분기(3조9189억원)가 역대 최고치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저금리였던 2021년 비해서도 벤처투자 금액은 34.3%(8479억원), 펀드 결성액은 57.2%(1조6000억원) 늘어났다”면서 “지난해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이 완전한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올해 1분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7000억원을 기록, 이를 합산할 경우 올해 1분기에만 5조원 이상의 성장자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됐다는 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2026년 1분기 벤처투자 규모 상위 3

개 업종은 ▲ICT서비스(21.4%) ▲바이오·의료(20.5%) ▲전기·기계·장비(15.3%) 분야였다.

ICT서비스 업종은 최근 5년간 매년 1분기 벤처투자 중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인공지능(AI) 관련 분야 투자 증가 영향이 컸다.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선 로보틱스, 연료전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기술분야의 성장과 함께 투자도 활발했다.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39억원 증가(85.5%)했다. 이는 바이오·의료 기업에 대한 대형 투자로 인해 전체 규모도 커졌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8개사이고, 10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사례도 확인

됐다.

이런 가운데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1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 10개 기업을 포함해 총 2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이 연간실적 기준 역대 두 번째 벤처투자 실적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벤처투자와 펀드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중기부는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대한항공 B787-10.

유류할증료 한 달 만에 ↓ 내달 5~6단계 하락 전망

뉴욕 노선 최대 20만원 낮아질 듯

국제선 여객기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할 전망이다. 일본 등 단거리노선은 2만원 전후로 뉴욕 노선은 56만원선에서 36만원선으로 20만원 가량 낮아진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오는 18일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공지할 예정이다.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6월 할증료는 현행 최고 단계인 33단계보다 5~6단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평균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6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은 갤런당 420~430센트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 구간제 기준 27단계(420~429센트) 또는 28단계(430~439센트)에 해당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솔제지, 종이 디자인 가치 확장… ‘인스퍼 어워드’ 성료

종이 소재 디자인 작품 538점 출품 인스퍼상 등 총 26개 작품 수상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상 신설

한솔제지가 국내 최초의 페이퍼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 연관 산업 발전 추가 모색에 나섰다.

한솔제지는 ‘제 8회 인스퍼 어워드(INSPIERAWARD)’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솔제지 팬시지의 대표 브랜드 ‘인스퍼(Insper)’는 ‘디자이너들에게 영감

을 불어넣는(Inspiring) 종이’를 의미하며, 인스퍼 어워드는 이러한 브랜드 정신을 바탕으로 종이 소재 디자인과 제작물을 조명하는 국내 첫 페이퍼 디자인 어워드다.

이번 어워드에는 종이로 제작된 다양한 인쇄, 패키지, 디자인 작품 총 538점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고상인 인스퍼상을 비롯해 블랙페이퍼상과 골든페이퍼상, 영디자이너상, 특별상과 지속가능성상 등 총 26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 상금 규모는 21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상’을 새롭게 신설했다. 해당 상은 종이와 디자인을 활용해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기업 및 브랜드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있어 용지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올해 수상작에 인스퍼의 대표 제품군을 비롯해 프로테

고, SC(N), 클라우드 등 한솔제지의 다양한 제품이 폭넓게 활용되며 작품별 콘셉트와 표현력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솔제지 한경록 대표는 “국내 최초 페이퍼 디자인 어워드로 시작한 인스퍼 어워드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종이 단산 소재를 넘어 사람과 브랜드,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한솔제지는 다양한 창작 활동과 디자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종이의 새로운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